

영암, 제61회 전남도체육대회 출전 준비 끝

24개 종목 · 360여명 선수단 참가... 종합 7위 목표



영암군은 20일부터 23일까지(4일간)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제61회 전남도 체육대회의 상위 입상을 위한 예열을 마쳤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3년여 만에 개최되며, 24개 종목(정식 22, 시범 2)에 22개 시·군 700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발휘하여 기량을 겨룬다.

영암군은 24개 종목에 362명(선수 248명, 임원 114명)이 참여하며, 특히 검도, 당구, 농구, 바둑, 배드민턴, 사격, 씨름, 유도 등이 상위입상을 목표로 탐금질에 분주하여 호자 노릇을

특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지난 대회 고전했던 불령 종목도 선수층을 두텁게 보강하여 중위권에 안착을 예상하고 있다.

영암군 선수단은 이번 대회 출전을 앞두고 20일 오후 1시 30분 영암실내체육관에서 기관·사회단체장과 실과소·읍면 종목별 결연 단체, 영암군 선수단 등이 참여해 군민화합과 선수단 필승을 위해 결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대표해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우리군이 체육강군으로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강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군 보건소, 폭염 대응 온열질환자 상시 모니터링

강진군 보건소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강진군 보건소와 강진의료원이 함께 온열질환자 발생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1,376명의 환자가 신고돼 전년 1,079명보다 27.5%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30명(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245명(17.8%), 40대 215명(15.6%) 순이었으며, 발생 장소는 작업장과 논밭 등 실외가 1,096명(79.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며,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몸을 시원하게 하여 체온을 내리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수분을 섭취하지 말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서현미 보건소장은 "여름철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온열질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건강 수칙을 잘 지켜 다가올 폭염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 '중대재해' 예방 전직원 직무교육 실시

신안군은 지난 16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됐지만 법 시행 초기로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종사자와 군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 법령의무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강의는 유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경영총괄부장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등의 내용으로 심층 깊게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신안군 전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확고한 안전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신안군 달성에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안군은 앞서 1월 27일 안전건설과에 전담 조직 '중대재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안=박정래 기자

진도 2022~2023년 면허양식장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지난 4월 최종 승인... 어장 재정비 · 어촌계 분쟁 해소 기대

진도군이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수립한 2022~2023년 면허양식장 ·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전남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어업인들의 현장여건과 의견을 반영하고 해조류 양식 등 63건, 1380.65ha를 수립하여, 전남도로부터 지난 4월 말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양식업과 어업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서의 이설 대체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면허양식장 · 어장개발계획을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면의 수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연안어장 재배치로 불법우심지구 어장 재정비와 어촌계 분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군 수산지원과 관계자는 "2022~2023년 면허양식장 ·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수면에 대해 면허처분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완도, 국제수산물전시회서 수출 기업과 홍보관 운영

관내 기업 9개소와 전북 · 해조류 등 완도 수산물 우수성 홍보

완도군은 18일부터 2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2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에 참가해 청정 바다에서 생산되는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있다.

서울국제수산물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전시회이자 국내외 수산 바이어, 전문가, 유통업체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완도군은 관내 수산 기업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매년 참가하고 있다.

군은 올해 9개소의 수출 기업과 함께 공동관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9개소의 수출 기업은 누리영어조합법인, 다시마전복수산, 완도사랑S&F, 해정정, 세계로수산, 완도다, 흥일식품, 해성인터내셔널, 이문삼육오 등이다.

홍보 부스에서는 전북 차우더, 전복 감바스, 광어 죽 등 다양한 완도 수산 식품을 국내외 바이어들과 소비자



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군은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홍보 공간도 별도 운영하며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은 완도 전복과 세계 최초, 최대로 ASC-MSC 인증을 받은 해조류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완도군 공동관을 둘러보다 제품을 구입한 관람객은 "완도 전복, 다시마

등이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간편식이 다양해서 신선하게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향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의 공동관 운영을 통해 수출 기업의 판로 개척에 힘을 실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무안, 간암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40세 이상 지역주민 350명 대상

무안군은 40세 이상 지역주민 중 간암 고위험군 350명을 대상으로 암의 주요 원인인 B형 · C형 간염 검사비(혈액 검사를 지원한다)를 지원한다.

B형 ·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나라 간암 발생의 가장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간염환자의 간염 인지율은 B형 간염 보균자의 48%, C형 간염 항체 보균자의 28%로 낮게 나타나 자가인지와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상자는 B형 · C형 간염 고위험군으로 전년도에 B형 · C형 간염검사를 받지 않은 자이며,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간암검진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진기관은 보건소와 협약한 의료기관 4개소로 무안병원, 남악하나내과 의원, 류내과의원, 망운가정의학과 의원이다.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2차 정밀검사와 전문의사의 진료를 연계하고, B형 간염 항체 미형성자에게는 예방접종 상담 등 1:1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안진화 건강증진과장은 "간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며 "간암 조기발견으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해남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영농안전장비' 지원

방제복 · 안전마스크 · 보안경 세트 농가 공급

해남군은 병해충 방제 시 농약 흡입 방지와 중독 등에 따른 농업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영농장비 1,902세트를 구입, 5월 중에 농가에 무상 공급한다.

영농안전장비는 농약 방제복, 안전마스크 3매, 보안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벼, 과수, 화훼 등 약제 살포량이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고령농, 영세농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장비는 농약 및 제초제 등 유해 화학물질을 차단하는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공인 시험연구기관에서 인정된 우수한 제품을 일괄계약 구매하여 공급한다. 군은 매년 안전장비를 지급해 오고 있는 가운데 농약 살포시 중독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90분의 기적

진도와 제주를 잇다

coming soon...

초쾌속카페리 "산타모니카"

2022년 5월 7일 취항!

· 총톤수 3500톤 · 속도 42노트 · 여객정원 606명 · 차량 86대

산타모니카 운항시간표

구분	진도출항	추가입항/출항	제주입항	제주출항	추가입항/출항	진도입항	선석
월 ~ 일	08:00	08:45 / 09:10	10:00	11:30	13:00	23번	
	14:30		16:00	17:30	18:20 / 18:45		

*정기취항: 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오시는 길 | 전남 진도군 임치면 진도항길 101 [홈페이지](http://www.seaferry.co.kr) | www.seaferry.co.kr [문의전화](tel:1577-3567) | 1577-3567